

◆ 제7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시상식 열려

국내산업물류 발전의 주요행사 열려



지난 11월 11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 경기도 과천 소재 기표원내 본관동 중강당에서 제7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식을 갖고 파렛트 및 컨테이너 분야의 품질향상 및 표준화에 기여한 유공자 및 업체를 표창·격려했다

올해로 일곱번째가 되는 이 행사는 기술표준원이 물류산업의 기본설비인 파렛트와 컨테이너에 대한 표준화를 이행하고 표준설비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표준 파렛트와 표준 컨테이너의 생산, 보급 및 사용실적이 우수한 기업과 표준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 매년 시상한다.

일관수송체제의 가장 핵심인 파렛트는 국가표준(KS)인 일관수송파렛트 T-11형을 2003년 국제표준(ISO)에 반영시킨 이후 정부와 업계 및 관련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내물류산업에 약 40%정도의 표준화를 이뤘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물류비 절감과 아시아지역의 물류표준화의 확산을 위해 2006년 한·중·일이 협력,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APSF)'을 설립한 바 있고, 일관수송용 파렛트 아시아표준안을 도출해 국가표준화 했으며, APSF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에서 화수파렛트 운영을 위한 '아시아파렛트 폴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이경호 회장, 아시아파렛트연맹 서병륜 회장 및 APSF 운영위원 등 물류업계 관계자 200명이 참석했다. 특히 물류관련학과 대학생들이 대거 참석하여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이 업계 및 학계에 까지 폭넓은 모범적인 행사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예의 수상대상자 업체는 (주)신영목재, 한국프라스틱(주), 서울장수(주), 농협공판장 가락공판장 등 4개업체 와 윤현기 상무(삼성테스코(주), 공로상)가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전일목재산업(주), 삼화프라스틱, 신젠타코리아(주), 청운친환경영농조합법인 등 4개 업체와 이현송 대표(일광영농조합, 공로상)가 기술표준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장상(우수상)은 이천농산물조합법인, 강릉초당두부관매(주)가 수상하였다.

◆ APSF 아시아 유닛로드시스템 컨퍼런스 열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세안 8개국 참여



지난 11월 11일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는 “APSF 아시아 유닛로드시스템 컨퍼런스”가 13:30~16:30까지 총 6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7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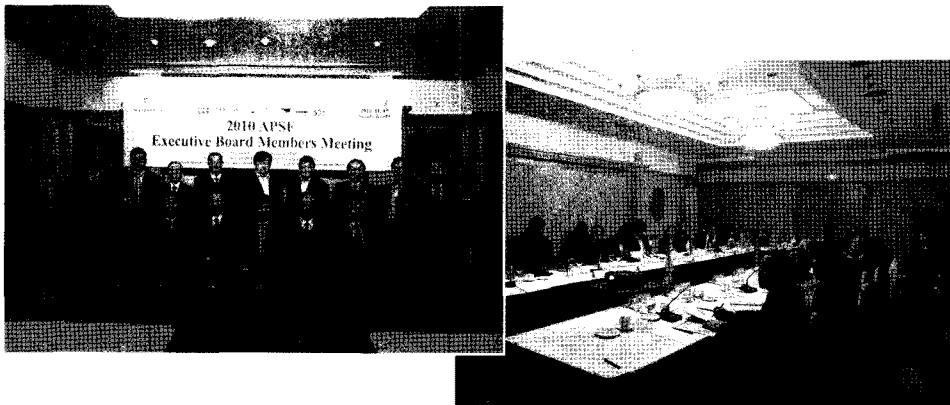
시상식에 앞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8개국 15명의 물류 전문가가 참석해 유닛로드시스템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했다.

또한 아시아 리터너블 파렛트시스템 구축필요성, 아시아를 위한 유닛로드모듈시스템 개발전략, 동남아시아에서의 파렛트표준화 동향 및 사례발표와 토론을 통해 파렛트 표준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APSF 아시아 유닛로드시스템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한국의 선진물류시스템을 알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물류발전에 선두주자로 나아갈 것이다.

◆ APSF 운영위원회 및 워킹그룹 회의 열려

아시아 일관수송용 파렛트 발전방안 논의



아시아지역 물류표준화를 이끌어갈 기구로 설립된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Asia pallet System Federation, 이하 APSF) 'APSF 운영위원회 회의 및 워킹 그룹 회의'가 11월 10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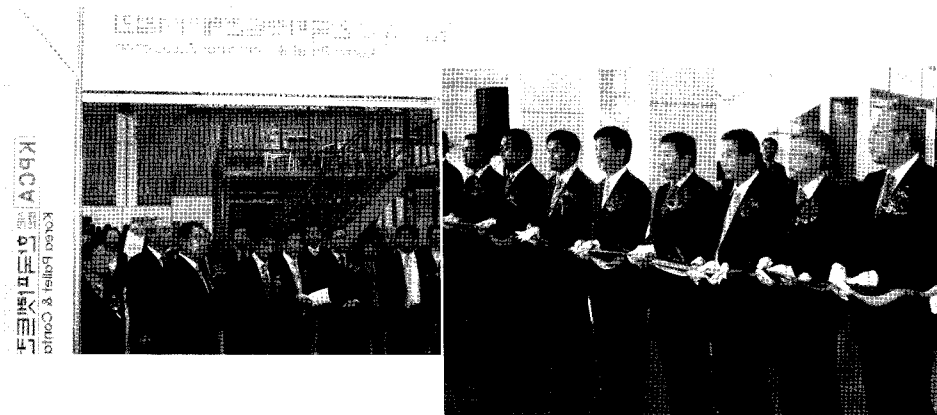
이번 APSF 회장단 회의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일관수송용 파렛트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과 아시아 국가간 파렛트 무관세 협력 시스템 구축 전략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밖에도 아시아 각국의 파렛트 표준화 현황 등이 발표되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물류신문사가 후원하는 이번 회장단회의에는

회장국인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7개국 대표자가 참석하였다.

현재 APSF 회장은 서병륜 LogisALL 회장이, 사무국은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맡아 APSF를 이끌어가고 있다.

◆ KPCA '2010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 참가 인천 송도에서 4일간 이루어져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2010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인천광역시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2010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는 올해가 3회째 국제행사로서 아시아 최고의 물류전시회이다. 금년에는 10개국 115개업체 415부스 규모로 개최됐다.

지식경제부에서 인천국제물류산업전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고, 또한 국제물류포럼은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국가 스타브랜드 예비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성장 가능성을 높게 인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향후, 물류분야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총 10개 통합 부스를 이용하여 APSF(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 협회의 회원사 및 '2010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수상업체 등을 흥

보하는 한편 협회의 개요와 지난 14년간의 업적, 앞으로의 활동 목표, 플라스틱 파렛트·컨테이너 자발적 협약 운영 등 친환경 사업, 유닛로드시스템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전시 품목으로 파렛트와 컨테이너 등을 설치·전시하여 물류관계자 및 일반 관람객에게 물류기기의 기본 핵심인 파렛트와 컨테이너의 중요성을 일깨웠으며, 표준 파렛트와 컨테이너 사용으로 인한 유닛로드시스템의 활용으로 물류비 절감 효과 등을 소개 하였다.

4일간 이루어진 이번 전시회는 APSF(Asia pallet System Federation) 서병륜 회장,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이경호 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국내 물류업계 및 학회의 전문가, 물류관련 대학생들이 대거 참석하고 큰 관심을 보이며 성황리에 마쳤다.

한편, 12월 9일 ‘2010 인천국제물류포럼’에 참가한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한국물류전략연구소 김정환 소장(전 명지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물류표준화와 유닛로드시스템의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열어 동기간에 개최한 ‘2010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물류산업 전반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이해는 물론, 현장의 기술과 인적교류 등을 설명하였다.